

斥邪綸音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吉 6022 33

論音

道光十九年十一月 日

內賜典獄叅奉李蘭孝斥邪

綸音一件

命除謝

息

待教臣南示

論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

王若曰嗚呼中庸曰天命之謂性尚書曰惟皇上帝降衷于下民若有恒性其論一原昇賦之初曰天曰上帝者天以形體言上帝以主宰言也曰命曰降衷者非諄諄然真有詔告也一理所發二氣斡焉四序所運萬品育焉人得之為性者其德有四曰仁義禮智也其倫有五曰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也此皆當然而然無待乎安排布置勉強作為故曰天生烝民有物有則率之則為順天悖之則

為逆天凡所以奉天而事上帝者豈有出於  
四端五倫之外哉嗚呼粵自羲農堯舜繼天  
立極其實畏而祇承惇叙而敬敷者惟此而  
已亦粵我夫子祖述憲章之後至于有宋羣  
賢其明天理淑人心者惟此而已毫釐有差  
猶謂之異端况乎陰沴荒誕怪詭不經之外  
道乎國有常刑必殺無赦此所謂辟以止辟  
也嗚呼我東虞文明之鄉襲仁賢之化美風  
善教厥惟久矣洪惟我

聖祖受天明命肇造區宇明彝倫以立人紀崇

道學以正國俗

聖子神孫做戒不怠丕克對越于天而休運永  
孚儒賢輩出上自公卿大夫下逮閭巷匹庶  
戶服洙泗之行家誦洛閩之書男以忠孝為  
本女以貞烈為重冠昏喪祭必遵乎禮士農  
工商各遂其業式至今胥匡以生國家賴焉  
矧惟我

正宗大王挺天縱之聖紹百王之統聲明文物  
粲然具備而不幸有凶賊承薰者購來西洋  
之書號為天主之學非先王之法言而潛相

誑誘非聖人之正道而馴致耽惑駸駸然入於夷狄禽獸之域於是乎

正廟憂其久而愈熾也治其魁宥其餘克推欲生之念俾開自新之路恩莫厚矣德莫盛矣雖豚魚之頌梟獍之凶亦當有所感悟而本性既喪舊習不悛以至辛酉討邪之獄而極矣其薄有才藝者艷其新而倡之矇無知覺者樂其誕而從之身處鄉宰自作窩窟家傳詩禮亦有淙污而文謨則變雜制敢行都市嗣永則裁帛書欲招海舶凶圖逆節於斯為



急苟非我

純宗大王暨我

貞純大妃悉燭魑魅之奸大振斧鉞之威廓闢  
而痛鋤之則國之為國人之為人未有未可知  
也嗚呼今距辛酉四十年所禁網寔疏邪教  
又盛虺蜮匿影稂莠易種逆豎變姓而出沒  
妖譎齎貨而交通潛募洋人至再至三而聲  
氣接於異域脉絡通於同黨比諸辛酉殆有  
浮焉肆予小子謹遵

皇祖之謨恭奉

慈聖之命不敢不行天之罰雖其迷惑而莫之  
返淪沒而莫之拯駢首連肩自底大戮而予  
惟為民父母其能無哀矜惻怛之心戚戚于  
中哉嗚呼予聞不教而刑謂之殃民予當以  
邪教源委逐條卞折用播告于爾在廷臣隣  
及我八方士女俾各曉然爾尚欽哉嗚呼彼  
為天主之學者曰是學也乃敬天也尊天也  
天固可敬可尊而彼所以敬且尊者不過如  
滌罪邀寵之諸鄙事自歸於慢天褻天也吾  
所以敬且尊者即向所謂四端五倫之昭天

命順皇降而日用事為之當於理也邪正之分不待兩言且彼耶穌云者不知其是人鬼是真是假而其徒之言以為始以天主下降死復上作天主為萬物民生之大父母天也者無聲無臭人也者有軀有殼斷不可相混而今以天謂之降而為人以人謂之上而為天是有何依俦可感之端而若是之矯誣也爾試思之往古來今有是理耶嗚呼匪父何生匪母何育欲報之德昊天罔極而生民以來漸滅他不得之大本也彼乃以生我者

為肉身父母天主者為靈魂父母親愛崇奉  
在於彼不在於此以自絕其父母是果血氣  
之倫所可忍乎祭祀之禮所以追遠報本而  
孝子之不忍死其親也神理人情不得不然  
而彼乃毀主廢祭謂死者無知苟如是也彼  
所謂靈魂又何所依靠首尾橫決不成倫脊  
虎狼惡獸也尚有父子之情豺獾微物也尚  
有祭祀之義則彼雖圓顱方趾曾虎狼豺獾  
之不若人之無良胡至此極嗚呼君臣之義  
無所逃於天地而彼乃以教皇教主作為稱

號不啻如戎狄之首長賊盜之渠率是欲攘  
司牧之權使政化無所底命令無所施也禍  
首亂本孰有甚焉嗚呼有陰陽必有夫婦不  
易之理也彼乃以不嫁不娶妄托貞德其下  
焉者男女混處穢亂風教由前則人之類滅  
矣由後則人之倫瀆矣無父無君既至於此  
夫婦之際又何可論至若聖母神父領洗堅  
振等種種名色愈出愈幻要之為狐魔巫覡  
符水詛呪之惑世者也粗具見識寧或疑眩  
而竄是天堂地獄之說易哄蠢然此釋氏

之陳腐也前人之辨已無餘蘊不足更事劈  
破而是曾孰見而孰傳之也蔽一言曰謊說  
也彼亦均受天賦并充人類而乃欲黻棄五  
常滅絕三綱以求其身後之福於恍惚茫昧  
之地者不亦惑之甚哉求福之道實有之矣  
詩曰永言配命自求多福又曰豈弟君子求  
福不回配命者合於理也不回者不為回邪  
之行以要之也如是則福自至不如是則欲  
求福而反取禍也予聞耶穌凶死之寂酷者  
也其學之為福為禍於此可驗而不惟不為

之視以為懲乃以刑死為樂地刀鋸拊楊啓  
不知畏如醉如顛莫可提醒非愚則妄吁可  
哀矣嗚呼此若為光明正大之教則何必講  
授於昏夜密室之中嘯聚於深山窮谷之間  
而廢種錮孽失志怨國之徒下流至愚騙財  
誨淫之輩互稱教友各設邪號藏頭隱尾打  
成一片也哉即此形跡已判其至凶至妖而  
究竟為計不出於黃巾白蓮之包蓄耳彼豈  
非生長於此邦食息於此邦者乎此邦之俗  
只是四端之擴充五倫之培植而父祖之所

相沿師友之歎相資皆在於是則何故捨此  
邦所共由之坦路甘心於幾萬里外異類之  
邪說以自就嗚呼彼浸漬之深錮者  
盤覈之畢露者固已咸伏厥辜而其未及現  
發者又不知糾結如何滋蔓如何死者雖不  
足恤生者猶可不變彼皆吾赤子耳忍使之  
一向沈盡不思所以牖昏嚮明之方乎今予  
敷示心腹非予言也乃惟天之經人之維古  
昔羣聖之訓也嗟爾臣黎欽哉欽哉父詔其  
子兄詔其弟其所訛誤者必思所以開導焉



其未陷溺者必思所以勸戒焉又或有開導  
勸戒而終不率者必思所以殄殪而懲創焉  
俾此一種毋敢更容則豈不休哉豈不休哉  
孟子曰經正則庶民興庶民興斯無邪慝矣  
為今之道其惟敦行誼以修其孝悌忠信篤  
經術以習其詩書易禮而勿以趨尚放縱背  
前聖之規矩勿以考據細瑣侮先賢之訓詁  
使我章甫衿紳粹然一出於天德天彝自然  
之則則吾道不期扶而扶異學不期斥而斥  
彼感發而自奮警惕而自悔者庸詎無去邪

歸正之理哉嗚呼書不云乎百姓有過在予  
一人今茲邪教之橫肆職由予寡昧不能導  
率之咎反躬自責若恫在已而載念爾一寒  
一煖一飢一飽之節罔非予小子夙宵憧憧  
則其於爾性命之所關係倫彝之所維持為  
人為獸之所界限剖判者予又安得不重言  
復言哀痛而諭之也

道光十九年十月十八日

유종외대쇼민인등척샤륵음

왕이이러트시곤야샤티오회라종용에곤오티하늘이  
명하심을일온성품이라하고상셔에곤오티크신상  
테하민의게충을나리오시미순하하야덜덜순성품  
이있다하니그호근천비부<sub>주시만</sub>말이라호처음을의논하  
미곤온련이라하며곤온상테라호문하늘은형테로  
버말하미요상테는<sub>주당호단</sub>쥬지말이라로버말하미며곤  
온명이라하고곤온강충이라호문순순트시참가르  
치고고호미잇슴이아니라일리의발호는바에두귀  
운이알현하며스셔<sub>말시란</sub>말이라의운전호는바에일만품  
물이성육호여사름이어더성품된재그덕이네히이  
시니곤온인과와려와지요그륵과다섯사이시니

곧은부조와군신과부부와당유와봉위라이다당연  
 히그러훈거시오안비포치<sub>단</sub>백로<sub>말</sub>하야<sub>두</sub>하며면강하  
 여지어함을기다리미업슨지라그런고로곧오되하  
 놀이못빅성을너시미물이잇스면법이있다하니조  
 촌즉하놀을순훈이되고어권즉하놀을거스름이되  
 는지라물잇배하놀을밧들며샹테를섬기느재엇지  
 스단과오른밧게나미이시리오오회라복회신롱테  
 요테순의하놀을니어극을세오므로부터그공경하  
 여두려워하고공경하야너으며도타히회고공경하  
 여피는재오직이샤름이오호우리부조<sub>공조</sub>의쇼  
 술<sub>단</sub>요순을<sub>말</sub>넘히<sub>라</sub>하시고현장<sub>단</sub>문무<sub>말</sub>를<sub>라</sub>법<sub>라</sub>밧<sub>라</sub>하<sub>라</sub>신후에송  
 나라군현에이르히그런리를밧기며인심을말권재

오직이 따름이라 호리니 어귀미 잇셔도 오히려이 단  
이라 이르거든 물며 음녀하고 황란하고 괴계하고  
불경호외되리오 나라의 덧덧호형벌이 잇셔반다시  
죽이고 사함미 업느니 이니 큰바형벌노 배형벌을 그  
치게 함이라 오회라 우리 동방이 문명호식글에 처호  
고인현의 교화를 이어 아름답다 온공속과 어질게 가르  
치미고 오직 오랜지라 크시다 우리

성조계오 사하 놀발그 신명을 밧즈와 비로 소구우를 지  
으 사<sup>나라</sup> <sup>를</sup> <sup>창</sup> <sup>업</sup> <sup>이라</sup> <sup>이</sup> <sup>륜</sup> <sup>을</sup> <sup>발</sup> <sup>켜</sup> <sup>배</sup> <sup>사</sup> <sup>람</sup> <sup>의</sup> <sup>벼</sup> <sup>리</sup> <sup>를</sup> <sup>세</sup> <sup>오</sup>

시고도 호을 노려 배나라 풍속을 바르게 함 사

성조와 신손이 경계호물게을 나아니 함 사크게 능히 하  
놀이 디호시 미아름다 온운이 길히 잇부고 유현이 무

리로나셔우호로공경대부로부터아리로녀항필셔  
가지밋쳐호마다슈소의<sub>공저소로시</sub> <sub>연여히라</sub> <sub>시</sub> <sub>형실을입고집</sub>  
마다락민의<sub>시연여히라</sub> <sub>글을외와사나희는통호</sub>  
로버근본을삼고계집은정렬노버등호거슬삼으며  
관혼상제를반드시네로쥬츠며스릉공상이각각그  
업업을일워버이제사지니르히셔로도와버사라국개  
힘입엇스니라하물며우리

경종대왕이년종의성인으로썬어나샤빅왕의통을디  
으샤성명과문물이찬연히가쥬터니불형이홍천승  
훈재이셔셔양의글을사와일함은년쥬의호이라하  
야천왕의법된말이아니여닐가마니셔로손이그달  
기머성의의바된되아니오닐담아고호하은의일위우역

침침히이적과금슈의지경의들시이에

덩묘계오샤그오리면더옥치성홀가근심<sub>ㅎ</sub>샤그괴슈  
를다스리고그나마는노흐샤극히사로그적<sub>ㅎ</sub>시는  
성각을미루여<sub>ㅎ</sub>여금스스로시롭게<sub>ㅎ</sub>는길을열으  
시너은혜이만후<sub>ㅎ</sub>미업고덕이이만성<sub>ㅎ</sub>미업는지  
라비록돈어의고<sub>ㄷ</sub>과<sub>ㄹ</sub>완악<sub>ㅎ</sub>과<sub>ㅎ</sub>효경의<sub>ㅎ</sub>생<sub>ㅅ</sub>아<sub>ㄹ</sub>흠<sub>ㅎ</sub>  
이라도또호<sub>ㅎ</sub>맛<sub>ㅎ</sub>당<sub>ㅎ</sub>히<sub>ㅎ</sub>감<sub>ㅎ</sub>동<sub>ㅎ</sub>야<sub>ㅎ</sub>씨<sub>ㅎ</sub>다<sub>ㅎ</sub>를<sub>ㅎ</sub>비<sub>ㅎ</sub>이<sub>ㅎ</sub>슬<sub>ㅎ</sub>거<sub>ㅎ</sub>시<sub>ㅎ</sub>로  
더본성을임의일코구습을고치지<sub>ㅎ</sub>못<sub>ㅎ</sub>여<sub>ㅎ</sub>배<sub>ㅎ</sub>신<sub>ㅎ</sub>유<sub>ㅎ</sub>토  
샤옥소의니르러극진<sub>ㅎ</sub>호<sub>ㅎ</sub>지<sub>ㅎ</sub>라<sub>ㅎ</sub>그<sub>ㅎ</sub>약<sub>ㅎ</sub>간<sub>ㅎ</sub>지<sub>ㅎ</sub>쥬<sub>ㅎ</sub>잇<sub>ㅎ</sub>는<sub>ㅎ</sub>자<sub>ㅎ</sub>는  
그시로움을염<sub>ㅎ</sub>선<sub>ㅎ</sub>야<sub>ㅎ</sub>창<sub>ㅎ</sub>괴<sub>ㅎ</sub>고<sub>ㅎ</sub>몽<sub>ㅎ</sub>연<sub>ㅎ</sub>이<sub>ㅎ</sub>지<sub>ㅎ</sub>각<sub>ㅎ</sub>업<sub>ㅎ</sub>는<sub>ㅎ</sub>자<sub>ㅎ</sub>  
는그허탄<sub>ㅎ</sub>흠<sub>ㅎ</sub>을<sub>ㅎ</sub>즐<sub>ㅎ</sub>겨<sub>ㅎ</sub>조<sub>ㅎ</sub>츠<sub>ㅎ</sub>몸<sub>ㅎ</sub>이<sub>ㅎ</sub>경<sub>ㅎ</sub>저<sub>ㅎ</sub>의<sub>ㅎ</sub>쳐<sub>ㅎ</sub>나<sub>ㅎ</sub>도<sub>ㅎ</sub>스<sub>ㅎ</sub>스  
로와<sub>ㅎ</sub>쿨<sub>ㅎ</sub>을<sub>ㅎ</sub>지<sub>ㅎ</sub>으며<sub>ㅎ</sub>집<sub>ㅎ</sub>의<sub>ㅎ</sub>시<sub>ㅎ</sub>례<sub>ㅎ</sub>를<sub>ㅎ</sub>던<sub>ㅎ</sub>나<sub>ㅎ</sub>도<sub>ㅎ</sub>또<sub>ㅎ</sub>호<sub>ㅎ</sub>물<sub>ㅎ</sub>드

러 더러움이 이스며 문모는 머리 삭근 계도를 변하고야  
감히 도시의 험하고 소영은 박셔를 마로져 여바다 비  
를 부르고 적하니 흥도와 역절이이의 급호지라 단실  
노우리

순종대왕과 밋우리

정순대비겨오샤니 덕의 잡케신 간악함을 다 통통하샤  
부월의 위엄을 크게 설쳐 확히 열고 통히다 사리미아  
니런들 못나라의 나라 됨과 사름의 사름되음을 가히  
아디 못하미이 슬너 나라 오회라이 제신유의 가미스  
십년이라 금망이 점점 소하고 사괴도 성하야 휘역이  
배암과 증생이라 그림자를 숨기고 낭위잡라 비를 밧  
고와 역적놈은 성을 변하고 틀물하며 요괴로 온역관



은지물을 밧고 교통하야가 만히셔 양사름을 쯤 모하  
미 두 번의 니르고 세 번의 니르러 성의는 이 역의 접하  
고 막 낙은 동당의 두루하야 신유의 비하미 쯤 못 더 흠  
이 잇는 지라 이러므로 나 쇼지 삼가

황조의 모를 좃고 공순이

쯤 성의 명을 밧드러 감히 하느 벌을 힘치 아니 치 못호니  
비록 그 미 혼하야 도라 오지 못하교 료물하야 건디지  
못하야 머리를 아오로 고 엇기를 년하야 스스로 큰 죽  
엄의 니르나 버오덕 비성의 부모 된 지라 그 능히 이금  
하교 측 달호미 음이 가온디 척척 흠이 업스랴 오히라  
너드르니 가라치지 아니하교 형벌 흠을 일으되 비성  
을 앙화호다하니 네 맛당히 샤교 원위로 배륙 쯤 하야

변석하야 배너의 쥬정에 잇는 신린과 밋우리 팔방수  
녀의 게려고 하야 하여 음각각 효연케 하노네 거의  
공경홀지여 다오 회라 처련쥬의 하하는 재즈오디이  
후은이에 하눌을 공경하교 하눌을 돕힌다 하니 하눌  
은진실노가히 공경하며 가히 돕히련이와 쥬의 배공  
경하교 또 돕히는 밧자는 불과 죄를 벗고 충을 요구하  
는모든터러온일이 스스로 하눌을 만홀이 하교 하눌  
을터러이논디 도라가미오나의 공경하교 돕히는 밧  
자는 곳향자이른바사단과오륜의 하눌명하시를 발  
키며 하눌나리오시를 순히 하야 일용스위에리의 당  
하미니 샅하며 바른디 난호이미 두말을기다릴거  
시아니오또 쥬여슈라이른재그사름인지귀신인지

참인지거죽인지아지못하거너와그무리의만이배  
하되처음에련쥬로배하강하고죽어다시올나가련  
쥬를지어만물민성의대부모된다하너하늘이란자  
는성취암세라너업고사름이란자논구각<sub>라</sub>형<sub>체</sub>이이  
스니단연히가히서로혼잡지못할거시여놀이적하  
늘노배이르되나려사름이되고사름으로배이르되  
올나하늘이된다하너이엇지의희이가히혹할단세  
잇셔이러르시표무<sub>속</sub>이라<sub>단</sub>하너노녀의시혈하야싱  
각하<sub>라</sub>왕고와리금에이러할리잇슬가보냐오회라  
아비곳아너면엇지나며어미곳아너면엇지기르리  
오덕을감고져할진디호련이망극하<sub>지</sub>라싱<sub>단</sub>배오  
므로식멸치못할큰근본이어늘제이에날나흔자로

배육신부모라하고련쥬자로녕혼부모라하고야친하고  
고사랑하고좁히고밧들미적괴잇고여괴잇지아니  
하고어배스스로그부모를원하니이과연혈괴의륜의  
가히참아할비냐제스의네는배먼디를싸로고근본  
을감는바요효조의참아그어버이를죽음으로아니  
미라신리와인정의시러곰그러치아니치못할거시  
여놀제이에신쥬를할고제스를폐하고일으되죽은  
재아름이업다하니딘실노이가틀진디제너론바녕  
혼은쏘어디의지하고야부친비노슈미황결하고야륜덕  
을일우지못함이로다호랑은몹슬짐성이로되오히  
러부조의정미잇고식달은미물이로되오히려제스  
의의이스쥬제비록동군머리와모는발이나일쥬호

랑과 의달만 갖지 못하니 사람의 어지지 못함이었지  
이 극진호덕이르노오 회라 군신더의 느런더의 도망  
할비업거 놀찌이에 교황과 교슈로 칭호를 지어 용적  
의 추장과 도적의 거슈 갖출뿐아니니 이 노스목의 생  
갓<sup>기르</sup>이라 권병을 아샤 하여 몸경화로니 를비업고 명  
녕으로 배풀비업게 흠이니 화의 머리와 란의 근본이  
뉘심함이 이슬고 오회라 음양이 이스면 반드시 부부  
잇는 거시 밧고 지 못할리어 놀찌이에 식집가지아니  
하고 장가드지아니므로 배망녕되이 정덕이라 의탁  
하고 그나 린자느 남네 혼쳐하야 풍교를 더러이고어  
즈러이니 천으로 말리암은 즉 사람의 뉘멸할거시오  
후로 말리암은 즉 사람의 뉘키더러온지라 아비업고

님군업스미임의이에니르니부부의즈음을또엇지  
가히의논하리요성모신부녕세견진등<sub>련류혹호</sub>의말이라  
갓튼종종명식이더옥닐수록더옥변환하니요지권  
터호마<sub>한말이라</sub>와무격이무형의부슈쳐주<sub>부작과</sub>진언이  
라의세상혹호게하는재라약간견식이가즈면엇지  
혹의심호고현란하리오가장이런당과더옥의말이  
어리고준준하니를속히기쉬우나그러하니이느척  
시의진취라<sub>씩볼도어목고</sub>전사롭의분변함이임의여  
온의업스니족히다시벽과함을일숨지아닐거시로  
덕이일즉취보고취련호노폐일언알황철이로다제  
또호고로게하늘몸부함을밧고아을나사롭의류의  
치와이에오상을편하야바리며삼강을멸하야은코

배그신후의복을황홀망미호씨의구호는재또호호  
홀이심치아니냐복을구호는도리실노인논이라시  
에골오디기리명을씩홀이스스로만흔복을구호미  
라호고또골오디기제호군지복을구호미회목지아  
니호다호니명을씩호다호은리에합당호미회회목  
지아니호다호은회샤호형실을호야배요구호지아  
니호미니이갓치호즉복이스스로니르고이갓치아  
니호즉복을구호고자호되도로허양화를취호는니  
라니드르니여슈는홍스를가장참혹히호재라호니  
그호의복되며양화되미이에가히증협홀거시도디  
오직보아배징계호지아니홀썬아나라이에형벌호  
야죽으므로낙지를숨아도거칼과톱와형양<sub>알</sub>말<sub>쓰</sub>이

라을민연히두려워호출을아지못하야취호도하고  
밋친듯하야가히배잇그러일세오지못하니어리지  
아니면곳망녕이라가히슬푸도다오회라이만일광  
명덩대호괴된즉엇지반드시혼야밀실가온다강하  
고가라치며심산공목사이의불너모와폐종고얼<sub>쥌</sub>  
짜<sub>쥌</sub>이<sub>의</sub>의<sub>뜻</sub>을<sub>일</sub>코나라원망하느무리와하류지  
우의지물속히고음란가라치느무리셔로교위라일  
긋고각각샤호를베푸러머리를감초고쇠리를숨겨  
일편을타성<sub>단호</sub>말<sub>말</sub>이라하리오이형적의임의그지극  
히흥하고지극히요괴로움이판단하고필경계교는  
황건과빅년의괴<sub>황</sub>건<sub>년</sub>은<sub>도</sub>적<sub>이</sub>라<sub>벧</sub>요<sub>포</sub>축<sub>의</sub>나<sub>지</sub>아<sub>니</sub>  
미라제엇지이나라의셔상장하며이나라의셔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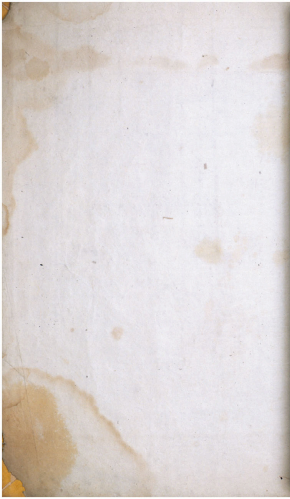


쉬<sup>법</sup>단말<sup>의</sup>이<sup>며</sup>유지<sup>아</sup>니<sup>하</sup>얏<sup>는</sup>나<sup>이</sup>는<sup>라</sup>풍<sup>속</sup>은<sup>다</sup>만<sup>이</sup>  
스<sup>단</sup>을<sup>확</sup>충<sup>단</sup>말<sup>이</sup>라<sup>하</sup>며<sup>오</sup>류<sup>을</sup>비<sup>식</sup>  
하<sup>야</sup>아<sup>비</sup>와<sup>하</sup>라<sup>비</sup>의<sup>셔</sup>로<sup>연</sup>습<sup>하</sup>는<sup>바</sup>와<sup>스</sup>승<sup>과</sup>벗  
의<sup>셔</sup>로<sup>조</sup>뢰<sup>하</sup>는<sup>비</sup>다<sup>이</sup>에<sup>잇</sup>거<sup>늘</sup>공<sup>무</sup>삼<sup>연</sup>교<sup>로</sup>이  
는<sup>라</sup>하<sup>가</sup>지<sup>말</sup>미<sup>암</sup>는<sup>바</sup>평<sup>탄</sup>하<sup>는</sup>길<sup>을</sup>뜻<sup>코</sup>몇<sup>만</sup>리<sup>밖</sup>  
괴<sup>이</sup>류<sup>의</sup>샤<sup>설</sup>을<sup>감</sup>심<sup>하</sup>야<sup>배</sup>스<sup>스</sup>로<sup>그</sup>물<sup>과</sup>함<sup>정</sup>의  
나<sup>아</sup>가<sup>는</sup>나<sup>오</sup>회<sup>라</sup>져<sup>침</sup>치<sup>함</sup>이<sup>심</sup>고<sup>하</sup>자<sup>화</sup>반<sup>희</sup>의  
다<sup>드</sup>러<sup>는</sup>자<sup>는</sup>딘<sup>실</sup>노<sup>임</sup>의<sup>다</sup>그<sup>죄</sup>의<sup>업</sup>되<sup>여</sup>시<sup>나</sup>그  
밋<sup>쳐</sup>현<sup>발</sup>치<sup>못</sup>하<sup>자</sup>는<sup>도</sup>가<sup>결</sup>  
조<sup>만</sup>말<sup>이</sup>라<sup>하</sup>미<sup>엇</sup>더<sup>하</sup>줄<sup>을</sup>아<sup>지</sup>못<sup>하</sup>노<sup>니</sup>죽<sup>은</sup>자  
는<sup>비</sup>록<sup>족</sup>히<sup>불</sup>상<sup>치</sup>아<sup>니</sup>하<sup>나</sup>산<sup>자</sup>는<sup>오</sup>히<sup>려</sup>가<sup>히</sup>크  
게<sup>변</sup>하<sup>거</sup>시<sup>니</sup>제<sup>다</sup>는<sup>의</sup>적<sup>지</sup>라<sup>차</sup>마<sup>하</sup>며<sup>음</sup>일<sup>향</sup>침

고흐야 버어 두음을 써다라 발근 디향홀방소를 생각  
 지아니 홀라이 제내 심복을 펴보느니 내말씀이아니  
 라이에오덕하늘의 텃텃흐미오 사람의 버리오넷모  
 든성인의 가라치심이라 슬푸다너 신려 신하와 빅 형이라  
 공경호며 공경호야 아비논그 조식을 일으고 형은그  
 아이를 일너그와오 그르말이라 만호 밧자논반드시베여러  
 인도함을 생각호고 그함너지아닌자논반드시베권  
 호고 경계홀바를 생각호고 호후여러 인도호고 권호  
 며 경계홀이이셔도마춤너 좃지아닛는 재잇거든반  
 드시베죽여징창홀바를 생각호야이일종으로호여  
 음감히다시 용납함이 업스죽엇지아람답지아니며  
 엇지아람답지아니라 밍저쿨으샤디경이바른죽셔

민이 흥과 하고 쇠민이 흥과 하면 이 샵 특함이 업다 하  
시니 이 제 홀도 리는 그 오직 힘의 틀도 타 이 하야 배 그  
효 데 튕신을 닷 그 며 경술을 독실이 하야 배 그 시셔 역  
비를 익 이고 추상 방종함으로 배 천성의 규구를 비 반  
치 말며 고 거 제 쇠 함으로 배 천현의 훈고를 업 슈이니  
기 지 말아 우리 장보금신 천변과 조 으로 하여 금 슈 연  
히 호갈 갖치련 덕 파련 이의 자연 훈법의 난 즉 우리도  
는 붓드 물과 약 지 아니 하야 도 붓들 니 이고 이 단에 호  
은 비척 함을 과 약 지 아니 하야 도 비척 하 리니 제 감 발  
하야 스스로 셜치며 경척 하야 스스로 누워 웃는 채 엇지  
샤 특함을 바 리고 바른 디로 도 라 올 리 업 스 리 오 회  
라 셔 천의 일 으 지 아니 하 었 는 야 비성의 허물 이 시 미

나훈사름의잇다훈너이제이샤교의횡수흠이전혀  
나파위의능히도솔치못훈허물노말민아름이라몸  
의도로여스수로척훈민알푼거시몸의잇는듯훈야  
곳싱각건터너의훈번차고훈번더우며훈번쥬리고  
훈번비부른절이나쇼즈의속쇼로동동치아너미업  
슨즉그너의성명의판계훈바와룬이의유지할바와  
사름되고증싱될계한부판훈밭샤의너쇼엇지시러  
끔중언부언훈야이통히일으지아너훈리오  
도광십구년십월십팔일





千榮激  
謝千榮火

文  
謝千榮火

丁卯年九月廿五日

千代火

千榮火

安在十月廿五日

千代火

安在二月二十六日

千代火

安在十月廿五日

千代火

安在十月廿五日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千代火

丙午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謝千榮火

